**16부작 드라마 시리즈 「임계점 (Critical Point)」 기획안**

**극본: Hamah**

**1. 가제: 임계점 (Critical Point)**

**2. 로그라인 (Logline)**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마약 스캔들, 그 끝에 권력 최상층부의 추악한 비밀이 있었다."

거대 마약 카르텔의 실체를 쫓던 원칙주의자 마약범죄수사팀장(형사2과장) '백도진'. 수사의 칼끝이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용산'의 심장부를 향하자, 그는 권력 상층부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다. 40대 형사과장, 30대 생계형 작가 지망생, 그리고 50대 독립언론 기자.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진실을 향한 위험한 동행을 시작한다. 무능한 대통령과 그의 탐욕스러운 아내, 그리고 그들의 뒤틀린 야망을 비호하는 기득권 카르텔이 국가시스템을 사유화해 저지른 헌법파괴의 한복판에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평범한 개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싸움을 시작한다.

**3. 주제**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양심과 정의가 어떻게 저항하고 살아남는가? 정의는 가장 추악한 욕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시스템이 붕괴된 자리에서, 망가진 개인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거악(巨惡)에 맞서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연대와 시대정신의 의미를 묻는다.

**4. 장르: 범죄, 스릴러, 수사, 드라마**

**5. 기획의도**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 드라마는 실제 사건의 파편들을 하이퍼리얼리즘의 문법으로 재구성하여, 이 시대의 심장을 관통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스릴러가 아니다. 권력 최상층부를 차지한 인물들의 병적인 욕망과 콤플렉스가 어떻게 한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그 내면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케이-느와르 캐릭터 연구**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낭만 대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처절한 현실을 보여줄 것이다. 우정과 배신, 추적과 도주, 몰락과 재기, 그리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시민 혁명의 스펙터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카타르시스와 깊은 시대적 공감**을 선사하고자 한다.

이것은 픽션의 외피를 쓴, 가장 공포스러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다.

**6. 전반부 시놉시스 (1~8부)**

### ****제1부: 균열 (The Crack)****

* **시간적 배경: 2023년 6월 25일 ~ 7월 10일**
* **뉴스:**
  + **[6.25] ‘민주주의의 위기’ 야당, ‘언론 탄압’ 규탄 대규모 장외 집회**
  + **[7.6]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윤세은 일가 특혜 의혹 확산**
  + **[7.9]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 정부 “엄정 대응” 발표**
* **사건:**
  + **(오프닝):** 전상준은 동료 계진우의 배신으로 자신이 만든 독립언론사 ‘더 스피릿’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그는 홀로 법적 다툼을 벌이며 고립된 상황.
  + **(발단):** 6월 25일, 박태수가 이끄는 형사1과에 '나체 난동 사건'이 접수된다. 검거된 피의자 최성욱은 부유층 자제. 그의 아내인 아나운서 차수정이 경찰서로 찾아와, 남편의 마약 투약을 의심하는 영상을 제출한다.
  + **(전개):** 박태수는 친구이자 형사2과장인 백도진에게 공조를 요청한다. 백도진이 마약 시약 검사를 시도하는 순간, 중앙지검 이진석 부장검사로부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 전화가 걸려온다.
  + **(절정):** 백도진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가 마약 구매 정황을 포착하고 최성욱을 재소환하지만, 그는 머리를 탈색하고 온몸을 제모한 상태로 VVIP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백도진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첫 패배를 맛본다.
  + **(엔딩):** 7월 10일, 모든 것이 막힌 백도진에게, 마약 조직에 쫓기는 조선족 여성 \*\*'리화'\*\*가 찾아와 "살려달라"며 절박하게 제보한다. 잠자던 백도진의 형사 본능이 마침내 깨어난다.
* **등장인물:**
  + **백도진:** 일상적인 사건에서 거대한 부패의 냄새를 맡고, 처음으로 '시스템의 벽'과 마주하며 분노와 무력감을 느낀다. 리화의 등장은 그에게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린다.
  + **한서우:**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 없이) 부모님 국밥집 일을 도우며, TV 속 '묻지마 범죄' 뉴스에 불안해하고, '배우 이현성'의 드라마를 보며 작가의 꿈을 키우는 평범한 청춘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 **박태수:** 친구 백도진의 수사를 묵묵히 도우며,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 **김창석: 영등포서의 마약수사 실적 부진을 고민한다.**
  + **전상준:** 배신, 재판, 비난 등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그의 눈에 해병대 일병 사망사건이 들어온다.**
  + **주변인물: 차수정(아나운서), 이진석(부장검사), 독사(정보원), 최성욱(난동사건 피의자) 등이 등장하여 사건의 배경과 갈등을 풍성하게 만든다.**

### ****제2부: 미끼 (The Bait)****

* **시간적 배경: 2023년 7월 10일 ~ 8월 11일**
* **뉴스:**
  + **[7.11] 리투아니아 순방 중, 윤세은 명품매장 방문논란**
  + **[7.19]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 사고(고 차승관 상병) 발생**
  + **[7.30] 해병대, '순직 상병 사건' 언론 제보 금지령 등 수사 외압 의혹 시작**
* **사건:**
  + **(발단):** 백도진은 리화의 제보가 '나체 난동남' 사건의 배후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김창석 서장에게 수사 확대를 보고한다.
  + **(전개):** 백도진의 형사2과 소속 마약팀이 먼저 초동 수사에 착수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팀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 답답함을 느낀 백도진은 자신이 강력7팀을 직접 지휘하기로 결심한다.
  + **(절정):** 백도진은 정보원 '독사'를 통해 리화를 협박하는 조직의 아지트를 특정하고, 일주일간의 끈질긴 잠복과 탐문 수사를 벌인다.
  + **(엔딩):** 8월 11일, 마침내 마약 유통 현장을 급습하여 중국 조직원 2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21g을 압수하는 첫 성과를 올린다. 백도진은 검거한 조직원에게서, 이 마약조직에 대한 진술을 받아낸다.
* **등장인물:**
  + **백도진:** 첫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집요하고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그는 단순한 마약 검거가 아닌, 배후 세력을 밝혀내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된다.
  + **김민준:** 백도진의 충실한 부사수로서, 탐문과 잠복 과정에서 그의 수사 방식을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강력**팀 형사들이 어린 나이에 자신들보다 직급이 높은 김민준을 불편하게 여긴다.**
  + **한서우: 전상준이라는 인물을 탐색하며, 그의 이야기를 자신의 드라마 소재로 좋은 스토리가 될 것을 확신한다. 그에게 접근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 **전상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배신한 동료 계진우가 운영하는 '뉴 스피릿' 방송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지켜보며 분노한다.**
  + **주변인물: 마약팀장, 강력7팀장 등이 등장하여 경찰 조직 내부의 현실적인 갈등과 역학 관계를 보여준다.**
  + **남산옥(전직 정보사령부관 출신 무속인): 평상복 차림으로 한 점집에서 여자 무속인에게 구영학의 사진을 내밀며,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 ****제3부: 추적 (The Chase)****

* **시간적 배경: 2023년 8월 12일 ~ 8월 23일**
* **뉴스:**
  + [8.14] '잼버리 책임론' 정쟁 본격화…상임위·국조 공방 예고
  + [8.18] '백현동 특혜 의혹' 신대현(이재명 모티브) 대표, 13시간 넘는 검찰 조사 후 귀가
  + [8.2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논란
* **사건:**
  + **(전담팀 신설):** 8월 14일, 김창석 서장은 '마약과의 전쟁' 실적 부진을 만회하고 백도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백도진을 팀장으로 한 '마약수사 전담팀'을 공식적으로 신설한다. 강력팀과 기존 마약팀을 결합한 이 팀의 탄생으로, 본격적인 마약수사에 열을 올린다.
  + **(수사 확대):** 김창석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 하에, 백도진의 전담팀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8월 18일, 마약 유통책을 추가 검거하여 필로폰 541g을 압수하고, 연이어 8월 23일에는 잠복 끝에 중국 조직의 중간책을 검거, 필로폰 5.4kg을 압수하는 쾌거를 올린다.
  + **(실체 파악):** 이 중간책 검거를 통해, 백도진 팀은 이 사건이 '말레이시아(제조/밀반입)-한국(운반/보관)-중국(유통/판매)'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삼각 커넥션임을 최종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 **(팀원의 희생):** 중국 조직 중간책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를 끝까지 추격해 검거한 팀원 형사 한 명이 당일 귀가 중 과로와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 **등장인물:**
  + **백도진:** 연이은 검거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지만, 동시에 사건의 규모가 상상 이상임을 깨닫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팀원이 쓰러진 것에 대해 리더로서 깊은 책임감과 분노를 느낀다.
  + **한서우:** '채상병 사건'을 취재하는 전상준의 방송을 보며,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 **황덕한:** 시행령 개정으로 노골적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밀어붙이기에 나선다.
  + **김창석: 백도진 팀의 눈부신 실적에 매우 고무되어, "내가 어디로 가든 쓰러진 형사는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하며 팀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 **전상준: 자신을 배신한 동료 계진우(가명)가 '뉴 스피릿'(가칭) 방송에서 진보언론의 가면을 쓰고 왜곡보도를 서슴지 않는 모습에 분노한다.**

### ****제4부: 판도라의 상자 (Pandora's Box)****

* **시간적 배경: 2023년 8월 24일 ~ 9월 9일**
* **뉴스:**
  + [8.2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국내외 반발 격화
  + [8.31] 국방부, '故 차승관 상병 순직' 조사 결과 축소 발표, '수사 외압' 논란 점화
  + [9.4] 신대현 대표(이재명 모티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
  + [9.8]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담당 검사, "MZ 조폭까지 척결" 엄정 대응 천명.
* **사건:**
  + **(검거 및 새로운 첩보**): 9월 5일, 백도진의 마약 전담팀은 끈질긴 추적 끝에 말레이시아 여성 조직원 \*\*소피아와 한나\*\*를 검거한다. 이들의 휴대폰을 통해, 말레이시아 조직 보스 \*\*잭\*\*이 '나무도마'로 위장한 필로폰 20kg을 국제화물로 보내 국내 유통을 시도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계획을 파악한다.
  + **(위장 수사):** 백도진은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검거 사실을 숨기고 조직원들을 이용한 '위장 수사'를 계획한다. 그는 이 위험한 작전의 승인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의 소신파 검사인 조원, 박지훈 검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 **(수사 실패와 내부의 적):** 9월 5일부터 8일까지 위장 수사가 진행되지만, '잭'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접선 장소에 나타나기로 했던 국내 조직원들도 모두 잠적한다. 백도진은 위장 수사 정보가 내부, 그것도 자신과 소통하던 검경 라인을 통해 유출되었음을 직감하고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 **(새로운 실마리):** 위장 수사는 실패했지만, 백도진은 압수한 조직원들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들이 과거 명동의 한 호텔에서 한국 조직과 접선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9월 9일, 그는 팀원들과 명동 현장 검증을 통해 한국 조직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확보한다.
  + **(운명적 만남):** 9월 9일, 백도진 팀이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명동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바로 그때, 근처에서 쇼핑을 하던 공나현(29세, 멤버십 룸살롱 마담)과 배수진(28세, 전직 배우)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다.
  + **(새로운 갈등의 시작):** 현장 검증 직후, 공나현은 방동현(20대 남성)으로부터 "네가 준 약 때문에 내 여자친구(이지희)가 망가졌다. 마약으로 신고하겠다"는 격앙된 항의 전화를 받는다. 공나현이 마약으로 인해 협박받는 모습을 본 배수진 사기꾼의 본능이 꿈틀댄다.
* **등장인물:**
  + **한서우:** **'차승관 상병 사건'이 축소 발표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이 사건을 홀로 추적하는 전상준 기자에게 동질감과 연민을 느낀다. 그녀는 전상준의 과거(동료들의 배신)에 대해 조사하며, 그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 **백도진:** 대규모 마약 밀반입 계획을 파악하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얻지만, 위장 수사의 실패로 인해 경찰과 검찰 내부에 자신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그는 친구인 박태수까지 의심하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독감에 시달린다. 조직원 심문조사에서 '1월 27일 밀반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 성과를 **김창석 서장**에게 보고한다.
  + **김창석: 수사 진행 상황을 비선라인을 통해 상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 **박태수: 아들 정후의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비 압박이 극에 달한다. 그는 백도진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경찰 상부로부터 백도진의 동향을 보고하라는 유혹과 압박을 받으며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 **악의 축 (황덕한, 강석훈 등): 백도진의 수사가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깊숙하게 파고들자, 위기감을 느끼고 그를 막기 위한 '플랜 B', 즉 본격적인 외압과 여론 조작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 **전상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준비한다.**
  + **심정호(중앙지검 부장검사):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담당 검사인 심정호 부장검사(신준호 모티브)는 "MZ 조폭까지 뿌리 뽑겠다"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 **공나현 & 배수진: 앞으로 다가올 '이현성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며, 새로운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다.**

### ****제5부: 영광과 그림자 (Glory and Shadow)****

* **시간적 배경: 2023년 9월 10일 ~ 9월 13일**
* **뉴스:** 
  + **[9.10] 신대현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 후 "짜맞추기 수사" 비판.**
  + [9.11] ‘초국가 범죄 확산 방지’ 한-말레이시아 경찰 치안 협력 추진 합의
  + [9.12] '채상병 사건' 수사단, "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명시" 잠정 결론. 국방부와 갈등 심화.
* **사건:**
  + **(영광의 정점):** 9월 10일, 백도진의 마약 전담팀은 최종적으로 마약 조직원 26명을 검거(14명 구속)하고, 필로폰 27.8kg을 압수하는 쾌거를 이룬다. 수사 과정에서 총 170kg의 밀반입 및 유통 규모를 확인하며, 이는 경찰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마약 사건임이 드러난다.
  + **(보고, 그리고 파장):** 9월 11일, 이 엄청난 성과와 함께 '인천세관 연루 의혹'이 김창석 서장을 통해 서울청과 국수본,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박훈서) 경무관)에게까지 보고된다.
  + **(위선적 쇼와 실제 범죄):** 바로 그 시각, 안호건 경찰청장은 용산의 지시로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단속 협의체' 행사를 진행하고, 마약 조직 보스 잭(마이클 모티브)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필로폰 100kg을 한국으로 선적하며 이 모든 것을 비웃는다.
  + **(새로운 갈등의 씨앗):** 9월 10일, 공나현은 방동현에게 "이지희에게 마약을 준 사실을 신고하지 말라"며 1,000만 원을 건네며 회유를 시도한다. 하지만 9월 12일, 방동현은 공나현을 마약 투약 및 공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다. 한편, 공나현의 동거인이자 전직 배우인 배수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공나현과 이현성의 관계와 마약투약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대포폰 유심칩을 구매한다.
  + **(압박의 시작):** '세관 연루'와 그 배후에 'VIP'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통령실은 즉각 움직인다.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경찰청은 박훈서 경무관을 통해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수사 외압을 받고 비상에 걸린다.
  + **(칭찬과 호출):** 9월 13일, 아무것도 모르는 안호건 청장은 귀국 후 영등포서에 '칭찬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저녁, 김경훈 서울청장은 김창석 서장에게 전화로 "용산의 뜻"을 암시하며 '비공개 오찬'을 제안한다.
* **등장인물:**
  + **백도진:** '세관 연루'라는 의혹 앞에서 수사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뇌에 빠진다.
  + **김창석:** 경찰청장의 칭찬에 들뜨지만, 서울청장과 용산의 압박을 동시에 받으며, 자신의 정치적 생사가 걸린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 **박태수:** 백도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사건의 배후에 어른거리는 거대한 그림자를 감지하고 친구에 대한 걱정이 깊어진다.
  + **전상준:** 이사회를 통해 드디어 법인과 방송 스튜디오를 되찾지만 자신의 옛 동료들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까지 져버린 모습에 분노한다. 분노는 이내 회의감으로 바뀐다.
  + **한서우:** 오랜만에 집에온 남동생 **한연우에게** 최근 군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과 '해병대 **박진형** 대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전상준** 기자가 '박진형 대령 수사 외압'의 배후로 '이창현(윤세은 주가조작 핵심인물)'을 지목하는 방송을 보고, 그의 탐사보도 영상을 섭렵하고 그를 돕기로 결심한다.
  + **황덕한:** ‘윤세은 리스크’가 검찰의 명운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자, 김강호에게 ‘윤세은과 헤어질 것을 강언한다.
  + **악의 축 (김강호, 윤세은 등):** 백도진의 수사가 마침내 자신들의 '성역'을 건드렸음을 인지하고, 그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즉 '연예인 마약 사건'을 통한 국면 전환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 ****제6부: 전쟁의 서막 (Prelude to War)****

* **시간적 배경: 2023년 9월 14일 ~ 9월 21일**
* **뉴스:**
  + [9.18] 배우 강시우(유아인 모티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조계 '이례적' 반응
  + [9.21] 신대현 대표(이재명 모티브),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방탄 논란' 속 여야 대치 극으로.
  + [9.21] 법원, 배우 강시우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 **사건:**
  + **(블랙메일의 시작):** 9월 14일, 배수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대포폰으로 공나현에게 "네 앨범에 재밌는 사진 많더라. 나라가 뒤집히겠어"라는 협박 문자를 보낸다. 공나현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고, 배수진은 15일과 16일에 걸쳐 요구 금액을 2억까지 올리며 그녀를 압박한다.
  + **(압박의 시작):** 9월 14일, 김창석 서장은 김경훈 서울청장으로부터 비공개 오찬을 제안하는 서늘한 문자를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구안와사 증세를 보인다. 같은 기간, 국수본과 서울청은 백도진의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첩'하는 문제를 검토하며, 그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 **(비극의 씨앗):** 9월 17일, 협박에 시달리던 공나현은 배우 이현성의 매니저 송기범에게 전화를 걸어, 이현성의 사생활과 마약 투약 가능성을 암시하며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19일, 공나현은 협박범이 배수진임을 알게 되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이현성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운다.
  + **(충돌과 명령):** 9월 18일, 비공개 오찬에서 김경훈 청장은 김창석에게 "'용산'에서 세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사건을 덮으라고 명령한다. 같은 날, **중앙지검 심정호 부장검사(신준호 모티브)**는 배우 강시우에 대해 200회 이상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여론 전환'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 **(마지막 저항과 좌절):** 9월 20일, 기자들의 압박에 시달리던 백도진은 김창석과 논의하여 22일 자로 언론 브리핑을 강행하려 한다. 하지만 그날 밤, 김창석은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백도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브리핑을 막아선다. 결국 백도진은 브리핑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엔딩):** 9월 21일, 좌절감에 빠져있던 백도진은 TV를 통해, '강시우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 한편, 같은 뉴스를 자신의 집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이현성의 모습이 교차되며, 그에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를 암시한다.
* **등장인물:**
  + **황덕한: 김강호, 윤세은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그들을 대신해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각종 비리로 인해 재물이 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빠진다. 서울중앙지검장 송기현에게 여론전환용 사건을 터트리라고 지시한다.**
  + **김창석: 충성심과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결국 권력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며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
  + **백도진:** 경찰 지휘부, 관세청, 서울경찰성, 본청 등 언론 브리핑 내용에서 세관을 언급하지 말하는 외압에 시달린다. 결국 브리핑 연기를 선택한다.
  + **한서우 & 전상준: '차승관 상병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며, 수사 외압의 피해자인 박진형 대령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 사건 역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방해받고 있음을 직감한다.**
  + **부장검사 심정호(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배우 강시우에 대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200회(5억원 상당) 투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 **박태수**: 아들 정후의 병세 악화로 수술비 압박이 극에 달하고, 경찰 상부로부터 백도진의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 **악의 축: '강시우 영장 기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하지만, 플랜B인 '이현성'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더 큰 판을 준비한다.**

### ****제7부: 역린 (逆鱗, The King's Wrath)****

* **시간적 배경: 2023년 9월 22일 ~ 10월 3일**
* **뉴스:**
  + [9.26] 법원, 신대현 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 [9.27]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확산.
  + **[10.1]** 국군의 날, 건군 75주년, 시가행진 부활, 왜?
  + [10.3] 개천절 연설에서 김강호 대통령, 반국가세력 또 언급
* **사건:**
  + **(반격의 시작):** 9월 22일, 백도진은 김창석 서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 형사6부(조원, 박지훈 검사)의 이례적인 협조를 얻어 인천세관 통관2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 그는 이 영장을 들고 직접 인천공항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 **(드러나는 진실):** 9월 24일, 2차 현장 검증. 백도진은 구치소에서 데려온 마약 운반책 소피아와 한나를 증인으로 내세워, 이들의 입국을 도운 세관 직원들을 직접 지목하게 한다. 세관 직원들이 먼저 조직원들을 알아보고 에스코트하며, 검색대 없이 통과시켜주고 택시까지 태워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터져 나온다. '인천세관 연루'는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이 된다.
  + **(권력의 보상):** 바로 그 시기(9월 23일), 과거 2월에 인천세관 마약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중앙지검 심정호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로 영전하는 인사가 발표된다. 이는 '충성'에 대한 권력의 보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암시다.
  + **(전면전 선포):** 9월 25일, 백도진 팀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공범인 세관 직원들을 정식으로 입건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권력의 '역린'을 건드린, 돌이킬 수 없는 선전포고였다.
  + **(외압의 서막):** 9월 26일, 고강혁 관세청장은 "개연성이 없다. 조직의 명예가 걸렸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수사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직후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
  + **(압박과 시간 끌기):** 9월 27일부터 추석 연휴(9/28~10/3) 내내, 백도진은 기자들의 브리핑 재촉에 시달린다. 그는 '총책 검거'를 핑계로 엠바고 연장을 요청하며, 연휴 중에도 홀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며 고군분투한다.
  + **(새로운 인물의 등장):** 10월 1일, 연휴 중 TV 뉴스를 보던 백도진의 눈에, 부산 버스정류장에 나타난 멧돼지를 사살하여 화제가 된 심상찬 경감의 인터뷰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 **(이현성 서브플롯):** 9월 22일, 공나현은 이현성에게 "해킹범이 3억만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현금 3억 원을 받아낸다. 그러나 26일, 협박범이 배수진임을 알게 된 공나현은 돈을 주지 않고, 이에 분노한 배수진은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역으로 협박한다. 10월 2일, 배수진의 계속된 협박에 공나현은 오히려 그녀가 사기꾼임을 주변에 폭로하고 잠적해버린다. 10월 3일, 공나현과 연락이 끊긴 이현성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 **등장인물:**
  + **백도진:** 시스템의 방해를 뚫고 진실의 핵심에 도달한다. 그는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과 사명감에 휩싸인다. 사건의 은폐와 자신과 팀의 안위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직감한다.
  + **한서우:** 전상준의 옛 동료와의 만남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의 실체를 깨닫고, 저널리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한다.
  + **전상준: 계진우 측과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며, 계진우 방송을 믿는 일부 대중의 사이버테러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 **박태수:** 아들의 수술 경과를 지켜보며 병원에 머무르지만, 백도진이 세관을 직접 건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한다. 그는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며 초조해한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현실과 친구를 지켜야 한다는 의리 사이에서 처절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
  + **금기영(경국일보 사회부 CAP):** 백도진을 찾아가 마약수사 관련 기사와 탐사방송을 위한 인터뷰를 제안한다.
  + **악의 축:** 백도진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 세관을 입건하자, 그들은 단순한 회유나 압박이 아닌, 그의 수사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 ****제8부: 포위 (The Siege)****

* **시간적 배경: 2023년 10월 4일 ~ 10월 10일**
* **뉴스:**
  + [10.10] 국회, 국정감사 시작. 여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등 각종 의혹 두고 격돌.
  + [10.10] 국정원, 합동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해킹에 매우 취약…”
* **사건:**
  + **(전방위적 외압):** 10월 4일부터, 백도진에게 시스템의 압박이 폭풍처럼 휘몰아친다. 서울청 폭력계장 최항우의 '세관 내용 삭제' 통보를 시작으로, 생활안전부장 주병남의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회유와 협박, 서울청 형사과장 간성민의 노골적인 '문구 삭제' 지시와 '사건 이첩' 압박이 연이어 터진다. 인천세관 통관 2국장 장계석 등 인천세관의 외압, 국수본 마약계장 어재문 등 경찰청 지휘부의 수사외압과 언론브리핑 외압이 이어지고, 백도진은 모든 통화를 녹음하며 버티지만, 그의 팀원들은 "과장님 때문에 다 죽는다"며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 **(이현성 서브플롯):** 같은 시기, 경찰은 공나현에 대한 마약 투약 및 공급 제보를 입수한 내용을 토대로 마약수사에 더 열을 올리며, 1% 멤버쉽 룸싸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이현성은 공나현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불안에 휩싸인다. 그의 불안한 모습은, 권력의 '여론 조작'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줄 서막임을 암시한다.
  + **(권력의 내부 암투):** 황덕한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라인인 여운식 검찰총장을 통해 남부지검에 압력을 행사하며, '시스템'을 통한 사건 통제를 시도한다. 반면, '비선 실세'인 권택현(김태효 모티브)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황덕한의 공식 라인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 준비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카드가 처음으로 암시된다.
  + **(개인적 위기):** 민지안은 윤세은의 히스테리를 견디다 못해, 옛 연인 김민준을 몰래 찾아온다. 그녀는 "이건 그냥 마약 사건이 아니다. 더 파고들면 당신들도 위험해진다. 제발 그만두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김민준은 그녀의 불안 속에서 사건의 거대한 배후를 직감한다. 한편, 백도진의 전처 이지연은 친구인 신임 수사과장 채민영으로부터 백도진이 위험한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으로 그를 찾아온다.
  + **(두 개의 추적):** 한서우는 '차승관 상병 사건'을 취재하던 중, 자신을 배신했던 옛 동료 계진우가 국방부 관계자와 은밀히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다. 계진우는 '뉴 스피릿' 채널을 통해 "박진형 대령의 월권이 부른 참사"라며 노골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한서우는 이 배후에 거대한 커넥션이 있음을 확신한다. 전상준은 자신을 음해하는 계진우와 '더스피릿'을 상대로 힘겨운 법적 투쟁을 이어간다.
  + **(최후의 저항과 비극의 서막):** 10월 10일, 모든 외압에도 불구하고 백도진은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강행한다. 그는 '세관 연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밀반입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브리핑 직후, 황덕한과 여운식의 지시로 남부지검 형사6부는 비정상적인 인사 발령을 통해 공중분해되고, 백도진은 모든 수사 동력을 상실한다.
  + **(내부의 균열):** 백도진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남부지검 형사6부의 조원, 박지훈 검사는 대검으로부터 비정상적 인사발령 통보받은 후 “대검에서 난리났다, 엄청 깨졌다! 우리가 모르는 수사내용이 있느냐?”고 백도진에게 확인 전화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신 있는 행동이 거대한 압력의 대상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괴로워한다. 이런 상황에 백도진은 거대한 권력이 더 거세게 자신을 압박하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을 느낀다.
  + **(시스템의 보복):** 브리핑 직후,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져 내린다. 황덕한과 여운식(가명, 검찰총장)의 지시로 남부지검 형사6부는 비정상적인 인사 발령을 통해 공중분해되고, 백도진은 모든 수사 동력을 상실한다.
* **등장인물:**
  + **백도진:**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과 팀원들의 원망 속에서 극도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경찰로서 할 일을 할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잡고 마지막 저항에 나선다.
  + **박태수:** 휴가에서 복귀했지만, 이미 망가져 버린 친구와 팀의 모습을 보며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린다.
  + **한서우 & 전상준:** 백도진의 브리핑을 보고 사건 취재를 준비한다.
  + **악의 축:** 백도진의 마지막 저항에 분노하며, 그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다음 단계, 즉 '보복성 감찰'과 '2차 가해'를 준비한다.
  + **남산옥:** 정보사령부 지휘부와 은밀히 접촉한다.

### ****제9부: 희생양 (The Scapegoat)****

* **시간적 배경: 2023년 10월 11일 ~ 11월 10일**
* **뉴스:**
  + [10.11] 유통된 필로폰만 74kg…다국적 마약조직 검거,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
  + [10.19] 인천광역시경찰청, 영화배우 40대 남성L씨, 입건 전 내사 단계로 조사중이라 밝혀
  + [10.23]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배우 이현성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 형사입건
  + [10.25] 배우 이현성에 이어 ‘이터니티’의 케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
  + [11.5] 경찰, "이현성 모발 정밀 검사 결과, 마약 음성" 발표. 그러나 수사는 계속.
* **사건:**
  + **(폭풍의 시작):** 10월 11일, 백도진의 브리핑 후폭풍이 몰아친다. 기자들은 '세관 연루' 의혹 기사를 쏟아내고, 당황한 경찰 지휘부는 마약수사대의 이첩 거부를 명분 삼아 사건을 다시 영등포서로 떠넘긴다.
  + **(외압 구원투수의 등장)**: 세관연루사실이 드러나는 상황을 막고자 경찰지휘부, 관세청이 협업하여 백도진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자 구원투수로 검찰이 등장한다. 조원, 박지훈 검사가 소속되었던 형사6부 해체는 물론, 해당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타 지검으로 인사조치된다.
  + **(여론 전환 착수):** '인천세관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윤세은의 지시를 받은 '비선 실세' 권택현이 움직인다. 그는 검찰과 경찰 내 자신의 라인을 이용, 대중의 시선을 돌릴 '연예인 제물'을 물색하고, 마침내 이현성을 타겟으로 삼는다.
  + **(비극의 서막):** 10월 19일, 인천지검 수사관이 흘린 정보로 이현성의 내사 사실이 터져 나오고, 23일, 기형준 인천경찰청장은 이현성을 피의자로 전환하며 '여론 전환'의 서막을 연다.
  + **(시스템의 붕괴):** 김창석 서장은 완전히 돌변하여, 팀장들을 불러 "진술밖에 없는 사건을 왜 자꾸 진행하냐"며 백도진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마약 전담팀'을 사실상 해체시킨다. 백도진이 신청하는 모든 영장은 남부지검 형사3부에 의해 기각되고, 그는 완벽히 고립된다.
  + **(또 다른 희생자들):** 한편, 연예인, 유력 정치인, 재벌 등 부유층, 검사, 판사 등 법조계 유력인사 등 특정계층만을 위한 강남의 1% 회원제 룸살롱. 그곳에서는 새끼 마담 공나현의 윗선인 대장 마담 장세희(재벌회장의 애첩)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녀의 주도 아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여대생들이 VIP 손님들의 유흥을 위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 장면을 통해, 권력층의 부패가 어떻게 평범한 이들의 삶까지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
  + **(표적이 된 희생양):** 백도진이 경찰 지휘부와 검찰, 권력 최상층부의 외압에도 거센 투쟁을 멈추지 않자 연예인은 물론, 친구인 박태수, 그 외 동료와 부하들까지 표적이 된다. 경찰 내부에서 백도진의 불도저 같은 업무방식에 대한 불만 여론이 서서히 피어난다.
* **등장인물:**
  + **백도진: 모든 수사 동력을 잃고, 동료들의 외면과 불신 속에서 처절한 고립감을 느낀다. 그는 이현성 사건이 자신의 수사를 덮기 위한 '희생양'임을 직감하고,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인다.**
  + **한서우 & 전상준: 이현성 사건의 비정상적인 언론 보도 행태와 백도진의 대규모 마약 사건에 대한 후속보도가 미흡한 점을 분석하며, 이것이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닌, 더 거대한 진실을 덮기 위한 '여론 전환용 보도'임을 확신한다. 두 사람은 '진실의 눈'을 통해 이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 **이현성: 속수무책으로 언론의 사냥감이 된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세상은 그를 '마약사범'으로 낙인 찍는다. 등 돌린 팬들의 무분별한 비난과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실망,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에서 하루 아침에 마약사범으로 전락한 현실 앞에 그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 **황덕한: 여운식 검찰총장과 성경오 중앙지검장을 움직여 남부지검 형사6부를 폭파시키고, 해당 사건을 형사3부로 이관, 백도진의 검찰 조력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검찰총장 여운식, 서울중앙지검장 성경오를 대동하고 김강호에게 마약게이트의 위중함을 알리며, 강하게 충돌한다.**
  + **악의 축 (권택현, 윤세은): 자신들이 설계한 대로 여론이 움직이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백도진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다음 단계, 즉 '보복성 감찰'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 **박태수:** 백도진과의 의리를 위해 상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대가로 과거의 사소한 비위(정보원 '야당'과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내사가 시작된다.

### ****제10부: 마녀사냥 (The Witch Hunt)****

* **시간적 배경: 2023년 11월 11일 ~ 12월 14일**
* **뉴스:**
  + [11/13] 인천경찰청, 이현성과 케이에 대해 명확한 물증 없이 수사 착수 인정
  + [11/24] "경찰은 K씨 폰만 믿었다"…이선균과 지디 향한 헛발질이란 비난 쇄도
  + [11.24] KBC, "배우 이현성, 유흥업소 실장 공나현과 사적인 통화 녹취" 단독 보도. 파문 확산.
  + [11.27] 경찰, "가수 K 마약 혐의, 불송치로 내사 종결 전망" 발표.
* **사건:**
  + **(여론의 광기):** 11월 11일, 가수 K의 누나가 SNS를 통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만, 대중의 비난은 멈추지 않는다. 11월 23일, 배수진은 '팩트원정대' 같은 자극적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나현과 이현성의 관계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폭로를 이어가고, 24일에는 KBC 방송사가 이현성과 공나현의 사적인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여론의 마녀사냥에 기름을 붓는다. 이현성의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해 경찰의 과잉수사 의혹으로 여론이 바뀌는 듯했으나, KBC뉴스 방송에서 이현성과 공나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다시 대중의 집중 비난이 쏟아진다.
  + **(백도진의 반격 시도):** 백도진은 경찰 내부에서 "이현성 사건이 백도진 팀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 판단한다. 그는 더 이상 조직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11월 12일, 금기영(경국일보 사회부 CAP)에게 자신이 녹음한 외압의 증거들을 넘기며 인터뷰를 진행한다.
  + **(좌절과 새로운 결심): 백도진은** 11월 15일, 금기영의 기사가 보도되지만, 데스크의 압력으로 검찰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된 채 '경찰 내부 갈등' 수준으로 축소 보도되고 이에 다시 한번 절망한다. 11월 16일, 백도진은 서울중앙지원에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 3명 관련 1심 판결문을 입수하고 인천공항 세관조사 1과에서 작성한 말레이시아 마약운반책 우범자 동향 보고서와 공범들의 비행기티켓 끊은 일정 등이 담긴 말레이시아 조직 보스 잭의 오른팔인 부두목 우칭저의 노트가 증거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한다. 검찰에서 축소, 은폐한 마약사건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가며, 검찰에서 취급한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려 하나 검찰의 방해로 실패한다.
  + **(한서우의 각성):** 한서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진다. 그녀는 작가 아카데미 수업에서, "자극적인 이야기가 팔리는 시대지만, 작가는 그 자극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평을 발표한다. 그녀는 전상준에게, 단순히 팩트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이 비극을 통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기획 기사를 제안한다.
* **등장인물:**
  + **백도진: 언론이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목격하고, 가장 원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진실을 추적하기로 결심한다.** 결국, 사실상 중단된 사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남은 팀원들과 함께 자비로 '말레이시아'로 가 총책 '잭'의 흔적을 찾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운다.
  + **한서우: 이현성의 비극을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자'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단순한 폭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저널리스트'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 **전상준: 금기영의 기사가 축소, 왜곡되었음을 직감하고 백도진에게 자신의 방송을 통해 진실을 알리자고 제안한다.**
  + **이현성: 연이은 마약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생활까지 난도질당하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다.** 그의 공개 소환조사는 기자들의 먹이감이 되고, 무분별한 사생활 공개 기사가 난무한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보며,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 **악의 축 (권택현, 윤세은): 자신들이 설계한 대로 여론이 움직이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백도진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다음 단계, 즉 '보복성 감찰'을 준비한다.**
  + **송기범(이현성 소속사 대표/매니저):** 언론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현성은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지속적인 공갈 및 협박을 받아왔으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음을 공식 발표한다.**
  + **기형준(인천경찰청장): 케이가 마약투여관련 무혐의 처분되자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증거도 없이 케이를 수사했는가?’ 라는 질문에 “케이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말하며, 공권력의 뻔뻔함을 보인다.**
  + **박태수:** 정보원 '야당'과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에 대한 감찰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 지친 나머지 백도진에게 이쯤에서 멈출 수 없냐며 그를 막아보려 한다.
  + **구영학(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경호처, 기무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의 기관장들을 불러 대통령 안가에서 비공식 모임을 갖는다.**
  + **김강호: 구영학이 주도한 안가 비공식 모임에 참석하여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말을 한다.**
  + **악의 축 (권택현, 윤세은):** 자신들이 설계한 대로, '인천세관 게이트'는 대중의 관심에서 완전히 잊히고, 모든 비난의 화살이 한 연예인에게 쏠리는 상황을 만족스럽게 지켜본다. 그들에게 이현성의 고통은 그저 TV 속 가십일 뿐이다.
  + **황덕한: 김강호, 윤세은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마침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계에 입문한다.**

### ****제11부: 별이 지다 (A Star Falls)****

* **시간적 배경 2023년 12월 15일 ~ 12월 27일**
* **뉴스:**
  + [12.15] 검찰, 신대현 대표 최측근 자택 압수수색. '정치 탄압' 논란 재점화.
  + [12.21] 국민통합당, 황덕한 비대위체제, 황덕한 법무부장관 사임
  + [12.23] 경찰, 배우 이현성 3차 공개 소환. "거짓말 탐지기 사용해달라" 억울함 호소.
  + [12.23] 영화 ‘서울의봄’ 천만 관객 돌파
  + [12.27] [속보] 배우 이현성,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 [12.28] 경찰, "비공개 소환 요청 거부한 적 없다" 책임 회피성 발언.
  + [2024. 1.2] 신대현 민주화합당 대표 피습
  + [2024.1.12]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故 이현성 죽음, 진상 규명 촉구" 성명 발표.
* **사건:**
  + **(마녀사냥의 절정):** 12월 23일, 이현성은 세 번째로 포토라인에 선다. 그는 19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모든 것을 소명하려 애쓴다. 26일에는 "억울하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청한다. 하지만 언론과 '유튜버'들은 그의 모든 것을 조롱하고, 그의 사생활 녹취까지 공개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 이현성에 대한여론 공세는 광기에 이르고, '인천세관 연루 마약사건'에 관심은 어느새 덮힌다.
  + **(시스템의 외면과 방조):** 백도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이것이 명백한 '인격 살인'임에 분노한다. 그는 금기영 기자를 통해 "이현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 여론 조성을 부탁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론이 원하는 그림"이라는 차가운 대답뿐이다. 권택현, 윤세은 등 '악의 축'은 이 광기를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잊히고 있음에 안도한다.
  + **(비극의 발생):** 12월 27일, 모든 희망을 잃은 이현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팬들이 충격에 빠진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은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난동에 가까운 양심 없는 취재 행태를 보이며 유족들을 괴롭힌다. 이현성의 빈소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료 배우 등 대중문화계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진다. 전세계 외신들은 앞다투어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인천경찰청은 "극단적 선택 징후는 없었다"며 무책임한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박태수**의 비위 의혹을 빌미로 그를 ‘직위해제’ 시킨다.
  + **(진실을 향한 분노):** 이현성의 죽음은, 그러나 새로운 불씨를 지핀다. 12월 28일, 전상준과 한서우는 '진실의 눈'을 통해 '경찰은 이현성의 죽음에서 자유로운가?'라는 제목의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그들은 경찰의 '수사공보 규칙 위반'과 '피의사실 공표', '비공개 소환 요청 거부' 등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한다. 연예인 마약사건이 더 거대한 추악한 진실을 덮으려 한 여론전환용 공작일 수 있다는 것을 의혹에 불을 지핀다. 2024년 1월 16일, M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취재노트'는 '70일, 고(故) 이현성 배우의 마지막 얼굴'이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방영한다.
  + **(꼬리 자르기):** 같은 날, 협박범 배수진이 경찰에 출석하고, 29일에는 공나현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찰은 모든 책임을 주변 인물들에게 떠넘기며 본질을 흐리려 한다.
  + **(행동하는 양심):** 문화예술인들은 성명 발표하며, “이현성 죽음, 인격살인… 수사 적법했나?”라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연예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여론과 사생활 폭로를 자행한 언론을 강하게 비판한다.
* **등장인물:**
  + **백도진: 김창석 서장에게만 보고한 내용이 유출되어 말레이시아 수사가 좌초되자 백도진은 김창석을 밀정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던 중, 이현성의 죽음과 박태수의 직위해제 소식에 극심한 자책감에 빠진다. 그의 분노는 이제 그 자신을 향해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다.**
  + **한서우: 이현성의 죽음 앞에 엄청난 슬픔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한편, 거대한 권력과 그들의 수족이 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생하는 언론사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동경하던 스타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자'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켜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진정한 '저널리스트'로 각성한다.**
  + **전상준:** 경기남부경찰청의 '이현성 수사 정보 유출' 경위조사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당한다. 그는 이 탄압을 통해, 자신의 싸움이 백도진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한다.
  + **차수정:** 개인 SNS에 "고 이선균 씨 죽음과 관련해 고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나는 KBS의 그 단독 보도를 짚고 싶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한다.
  + **이현성: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을 후회하며 아내에게 유서를 남기고 밖으로 나가 차에 오른다. 음악을 크게 틀고, 차를 운전하며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삶과 그 뒤에 가려진 한 중년 남자의 고뇌와 외로움 사이에서 끝도 없이 흔들리던 자신의 모습을 주마등처럼 떠올린다. 한적한 공원에 차를 멈추고 오열하면서 생을 마감한다.**
  + **김강호, 윤세은: 영화 ‘서울의 봄’을 함께 관람한다. 윤세은은 관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화라는 게 때로는 인생의 해답을 주기도 해.”라며 천박하게 웃고, 그 모습에 김강호도 따라 웃는다.**
  + **송기범(이현성 소속사 대표/매니저):** "고(故) 이현성 배우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애도해 주시는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발인을 포함해 이후 진행되는 모든 장례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마음으로만 애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다. "또한 자신을 유튜버로 소개한 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장례식장을 방문해 소란이 빚어지는 등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부디 황망히 떠나보내야 하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유가족과 동료, 지인 모두가 원하는 만큼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며 끝내 오열한다.
  + **박태수:**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아들 정후의 치료비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 이현성의 소식을 듣고 짓누르는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자신과 친구 백도진도 저렇게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다.
  + **신대현**: 민주화합당 대표는 피습으로 목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살아난다.
  + **황덕한: 정치적 입지를** 친황계 간종율 국민통합당 비대위원, “윤세은,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로부터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를 받는다.
  + **기형준(인천경찰청장): 진술만 가지고 이현성을 세 차례 포토라인에 세운 셈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이 지하로 이동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도 우려했다"고 해명하며,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힌다.**
  + **악의 축:** 이현성의 죽음으로 여론전환에 실패하고, 오히려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백도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경찰지휘부 동원을 지시한다.
  + **대중:** 이현성을 향해 무분별한 비난을 쏟아내던 대중은 그의 죽음 이후, 자신들의 손에 묻은 피를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그 분노의 화살을 또 다른 대상(경찰, 언론)에게 돌리며 혼란에 빠진다.

### 제12부****:**** 포위망 (The Closing Net)

* **시간적 배경 2024년 1월 23일 ~ 7월 31일**
* **뉴스:**
  + [1.23] 경찰, '이현성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언론사 압수수색. 민언련, "비판 언론 입막음용 보복 수사" 비판.
  + [2.15] 검찰, "신대현 대표 부인 10만원 법인카드 사용" 기소... '윤세은 디올백'은 외면.
  + [3.18] 김강호 대통령,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 논란.
  +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화합당 압도적 승리.
  + [5.21] 차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10호)
  + [6.21] 국회 법사위, 차상병 특검법 청문회
  + [7.23] 국민통합당 전당대회, 황덕한 신임 당대표 선출
* **사건:**
  + **(또 다른 탄압):** '故 이현성 사건'에 대한 비판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전상준의 '더 스피릿'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다. 이는 진실을 말하는 언론에 대한 정권의 노골적인 탄압 신호탄이었다. 남부지검에서 백도진의 압수수색영장을 또 반려하는데, 그동안 기각결정문과는 사뭇 다른 상세한 기각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 영장검사는 다름 아닌 2023년 2월 인천지검에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 검거 후 사건 축소, 은폐한 추석영이다. 황덕한과 여운석을 통해 추석영 검사를 남부지검 형사3부로 발령해 백도진의 수사 방해를 도모한 것이다.
  + **(시스템의 붕괴와 보상):** 2월 2일, 김창석 서장은 '인천세관 게이트'를 성공적으로 덮은 공로를 인정받아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한다. 그의 후임으로는, 과거 백도진에게 노골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던 간성민 총경이 부임한다. 주병남에 대한 형식적인 징계 요청을 하면서 경징계로 ‘견책’ 의견만 개진하고 마무리되고, 심중호 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차장 검사)로 영전, 기은심 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 동부지청 차장 검사로 승진한다.
  + **(백도진의 고립과 저항):** 백도진은 새로 부임한 간성민 서장과, 남부지검 형사3부로 발령 받아온 추석영 검사에 의해 모든 수사(압수수색 영장)가 막히는,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다. 주재훈 서울청장의 지시에 의해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 주창병이 백도진 수사팀 회의를 소집하고, 사건을 종결하라고 압력을 행사한다. 주재훈 청장이 서울경찰청 산하 정보과와 청문관실 직원들에게 SRI(SPECIAL REQUIREMENT INFORMATION, 특별 첩보 요구)를 지시한다. 백도진의 비위 사실이나 갑질 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탈탈 털어서 수집하고 찾아서 보고하게 한다. 백도진은 최세윤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김경훈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강혁 관세청장 등 경찰과 관세청 고위 간부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시스템에 정면으로 저항한다.
  + **(2차 가해와 희생):** 경찰 지휘부는 경찰 감찰관실 청문관 변낙연 청문관(백남익 모티브)을 통해 백도진에 대한 표적 감찰을 시작한다. 변낙연은 인천세관 마약 사건 연루 피의자 중 한 명으로 하여금 국민 신문고에 진정을 접수하도록 하는 등 고발사주를 감행한다. 또 변낙연 감찰관은 박태수가 야당(독사)과의 돈거래한 정황을 꼬투리로 백도진과 엮어 비위사건으로 만들려 했으나 변낙연의 부하직원 오진우 경장은 양심상 실행하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재송치한다. 이 일로 오진우는 변낙연의 혹독한 갑질과 왕따에 시달리게 된다.
  + **(악의 축, 내부 암투):** 총선 참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김강호는 현실을 부정하며 '부정선거론'에 집착한다. 윤세은은 '지지율 반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뉴라이트' 가면을 쓴 권택현을 부추겨 '마약 사업'을 정당화한다. 한편, '김건희 리스크'에 환멸을 느낀 황덕한은, 검찰 내 자신의 라인을 규합하며 김강오-윤세은 부부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 마침내 7월 국민통합당 대표로 선출되며 미래 권력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 **(새로운 조력자와 반격의 불씨):** 전상준은 '더 스피릿' 압수수색 이후, '장공장의 뉴스공장'(김어준 모티브)과 연대하여 더 강력한 스피커를 얻는다. 한서우는 기자로서 완전히 각성하여, 백도진의 좌천 과정과 오진우 경장의 비극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마침내, 7월 27일, 백도진은 국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외압의 배후는 용산"이라는 폭탄 발언을 하며 반격의 서막을 연다.
* **등장인물:**
  + **백도진: 온갖 외압과 동료들의 원망 속에서도 버티던 그는, 팀원들이 "그만 포기하라"며 등을 돌리자 무너져 내린다. M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취재노트' 5천억 마약 밀반입 사건의 진실 보도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알리고자 했던 시도는 검찰의 마약 밀반입 사건 축소, 은폐한 정황이 누락된 채 방송되면서 다시 한 번 그를 실망시킨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주재훈에 의해 결국 화곡 지구대로 좌천당하고, 다음 날 '공보준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을 사유로 한 '경고' 처분 통지서를 받는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지만, 한서우와 전상준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청문회에 서고, 홀로 시스템에 맞서는 외로운 싸움을 다시 시작한다. 마침내 국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외압의 배후는 용산"이라는 폭탄 발언을 하며 반격의 서막을 연다.
  + **한서우:** 기자로서 완전히 각성하여, 백도진의 좌천 과정과 경찰 내부의 부조리를 집요하게 파헤친다.
  + **전상준:** 백도진의 청문회 발언을 계기로,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담은 '국민 청문회' 방송을 기획한다.
  + **김강호: 각종 국가 행사에서 반국가세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날 선 대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한편, '차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개혁'을 외치는 등 국정 난맥상을 보이며, 점점 더 고립되고 비이성적인 판단에 매달린다.**
  + **박태수: 백도진이 좌천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비겁함에 깊은 환멸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조용히 무언가를 결심한다.**
  + **신대현**: 총선 승리로 국회 의석수를 확보한 그는 '차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며 정권을 압박한다.
  + **황덕한: 신임 당대표로서, 김강오-윤세은 부부와 선을 그으며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구축, 차기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이어간다.**

### ****제13부:**** 최후의 카드 (The Last Card)

* **시간적 배경: 2024년 8월 1일 ~ 12월 3일**
* **뉴스:**
  + [8.14] 김강호 대통령, "반국가세력, 국정 발목잡기" 강경 발언.
  + [9.19] '마대건 게이트' 최초 보도, 윤세은 공천 개입 논란 점화.
  + [10.7]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저강도 도발 지속.
  + [11.1] 김강호 대통령 지지율 19%로 첫 붕괴.
  + [11.26] 윤세은 특검법 재수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 [12.3] [속보] 김강호 대통령,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

### ****제14부:**** 결전의 밤 (The Longest Night)

* **시간적 배경: 2024년 12월 3일 ~ 12월 14일**
* **뉴스:**
  + [12.4]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5] 야당, "위헌적 내란 사태" 규정, 대통령 탄핵 절차 즉시 착수.
  + [12.7] 황덕한 국민통합당 대표, "역사의 편에 서겠다" 탄핵 찬성 공식 선언.
  + [12.14] [속보] 국회, 김강호 대통령 탄핵소추안 압도적 가결.

### ****제15부:**** 심판 (The Judgment)

* **시간적 배경: 2024년 12월 15일 ~ 2025년 4월 4일**
* **뉴스:**
  + [12.15] '내란 특검' 출범, 구영학·주재훈 등 핵심 가담자 줄소환.
  + [1.20] 특검, '죽음의 수첩' 실물 확보. "체포 및 사살 명단 존재 확인".
  + [2.10] 헌법재판소, 김강호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 [3.15] 내란사건 1심 재판, "헌정질서 파괴" 구영학 등 핵심 인물 중형 선고.
  + [4.4] [속보] 헌법재판소, 김강호 대통령 파면 결정.

### ****제16부:**** 새벽 (The Dawn)

* **시간적 배경: 2024년 12월 15일 ~ 2025년 4월 4일**
* **뉴스:**
  + [4.5] 조기 대선 정국 본격화, 황덕한-신대현 양강 구도 형성.
  + [6.10] 신대현 후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 [7.15] '윤세은 특검' & '차승관 상병 특검' 본격 수사 착수.
  + [7.30] [단독] '진실의 눈', "내란 핵심 설계자 이창현, 베트남에서 포착".